

다문화이주민+센터 '인기 짱'

이용자 대폭 증가... 6개 국어로 안내·맞춤형 서비스 제공

익산시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가 올해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조기 정착 지원, 출입국 체류 관리 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의 고용허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각 정부 부처별 업무를 한 공간에서 기능적으로 통합해 제공한다.



시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올해 월 이용자가 7월 말 현재 1,129명(누적 7,903명)으로 지난해 평

균 이용자 954명(누적 1만,457명)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는 신규 입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코로나19로 본국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고용 허가 연장, 취업 관련 등 방문이 주를 이뤘고 올해는 신규 외국인 입국자가 조금씩 늘어 증가세로 전

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내·외국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베트남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6개 언어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 안내,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등에 대해 책자, SNS를 통해 다국어 정보를 안내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개소한 이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해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이주민센터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관내 중학교 3학년 131명, 고등학교 1학년 149명 대상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 리더십 멘토링 하계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고1·중3 대상 진로탐색·자기주도 리더십 멘토링 실시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관내 중학교 3학년 131명, 고등학교 1학년 149명, 총 27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6일까지 총 12일동안 전북의고에서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 리더십 멘토링 하계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멘토 대학생들의 컨설팅과 다양한 진로 및 학습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줬으며,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향후 진로 및 진학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겨울방학에도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 리더십 멘토링 연계 캠프가 중·고1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재택치료자 대상 건강모니터링 실시

익산시가 고령자 위험군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선제적 대응조치를 실시해 나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정부 재택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이 전면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

익산시보건소는 이달부터 70세 이상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안정기까지 재택치료 콜센터를 통해 우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재택치료자로 확진 후 1일 차와 5일 차에 우선 상담을 진행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안내와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을 안내, 돌봄 취약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 2차 모집

익산시는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화장실, 입식테이블, 칸막이 등 위생 관련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19일까지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음식점 조리장 개선, 화장실 개보수, 입식테이블 설치, 방역환경 조성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소당 사업비의 70%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700만원이고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주소 및 사업장이 익산시로 등록된 영업자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제한 대상은 영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2021년도 시설개선 지원·선정 업소, 소수방·호프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제·지방세 체납업소이다.

/*익산=이재춘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12개사 참여 300여명 채용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8일 군산배민금전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오는 2023년 1월 재가동을 위해 사내협력사 12개사를 선정해 올해 3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9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매칭데이를 진행하게 됐으며, 앞서 지난 7월 12일에는 조선업종 취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채용정보를 통한 알선을 위해 현대중공업 입직원과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6개기

관)이 참여해 채용계획과 업무분야, 근로조건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매칭데이의 채용규모는 사내협력사 12개 기업 △(주)현대포스, △(주)유성ENG, △STM에스팀, △(주)백산에이치디, △(주)신광이엔지, △(주)대승산업, △(주)부성산업, △(주)남원, △(주)승민, △(주)덕산기업, △(주)선영테크, △(주)서해테크가 참여해 3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직종은 취부, 용접, 사상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며 (주)현대포스 등 4개사는 여성인력이 할 수 있는 직종으로도 채용할 예정이다. 매칭데이 당일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채용

계획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채용설명회(13:00~13:30) 시간도 마련했으며, 면접 편의를 위해 면접장(군산배민금전센터)과 군산시내간 셔틀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선과 시간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 컨설팅, 입사지원 사진 무료촬영지원, 면접비지원(전라북도일자리센터 지원)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부대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필수 인력을 채용해 내년 1월 정식가동에 힘을 보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귀농귀촌인 농기계 활용기술과정 실용교육 진행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군산시가 나서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관리기, 배토기, 소형굴삭기 등의 농기계 활용기술 실용교육을 귀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귀농귀촌인 영농실습장(성신면 여방리 856-1번지)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초기 정

차과정의 귀농귀촌인이나, 지역농업인, 그리고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거주민은 오는 10일까지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오는 11월경에는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등의 실용교육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동시에 시의 귀농귀촌 정책이 호응

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444세대 749명의 귀농·귀촌인이 우리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며, 올해에도 2분기 까지 270세대, 444명이 전입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8%가량 증가한 수치로 시가 펼치는 지속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대표 음원 '익산으로' 커버 공모전 개최

익산시는 지역 대표 음원인 '익산으로'를 활용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부르는 노래 커버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내가 부른 '익산으로' 노래 커버 곡을 이달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커버송이란 유명한 기존 곡을 다른 음악가가 재연주하거나 재편곡하거나 재녹음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번 커버 지정곡 '익산으로'는 지역 출신 대표 가수 마크툽(MAKTUB)이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작사·작곡하며 노래한 음원이다.

커버는 발라드, 국악, 트로트, 랩, 댄스 등 장르에 국한 없이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5분 이내의 동영상 MP4(1920x1080 pixel)를 제작 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KCS90@korea.kr) 신청하면 된다.

1차 예비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추후 익산시 홍보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 '익산으로' 음원 및 익산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